

'도 관광패스라인' 국민디자인 선정

'익산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기초 지자체 부문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전북도의 일부 관광사업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선정돼 향후 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1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 과제 공모사업에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과 '익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국민디자인이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시책을 발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설계 기법이다.

이번에 실시한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사업'은 일반국민과 서비스디자인으로 구성된 정책추진단이 공공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방식을 개발·개선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총 285개 사업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거친 후 최종 13개(광역 3, 기초 10) 사업이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됐다.

그 중 전북도 사업인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이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선정돼 서울시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했고, 익산시의 '익산 문화예술거리 조성사



6.10 민주항쟁 기념식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주최 제2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박상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광야에서'를 합창하고 있다.

업'이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 선정돼 향후 지역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과 시·군 내 버스를 연계한 자유이용권 형태의 전북투어패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해 관광객 편의도모와 지역경제에 기여토록한 사업이다. 현재 전주와 완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노령화로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는 가운데 철도 역사, 근대화역사 및 예술을 매개로 주민 스스로 기획,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동체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

된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은 일반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각 사업별 브랜드(BI)를 만들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도 익산 구도심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어패류 충분히 익혀 드세요

비브리오패혈증 지난달 30일 올 들어 도내 첫 검출

최근 때 이른 고온 현상에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달 정도 이른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발견돼 어패류 등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내 서해안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올해 첫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6월29일 검출)에 비해 한달 빨리 검출된 것으로 최근 고온현상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에서 균활성도가 높아지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호염성 세균이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해수, 갯벌과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되며 패혈증으로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50% 이상이다.

또한 간질환 환자, 당뇨병 등 저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들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돼 발병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증상은 평균 1~2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급성발열, 오한, 구토, 전신쇠약감, 설사, 하지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한 출혈 및 흉반, 수포, 괴사 등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6월~9월 사이에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한 어패류의 보관은 5℃ 이하로 저온보관하고 가급적 85℃ 이상으로 가열처리 후 섭취하는게 좋다.

어패류를 요리한 칼, 도마 등은 소독 후 사용하고 피부에 난 상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도민들이 사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만약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익산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학교급식소 등으로 납품될 생닭 완제품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전북도는 위생관리법 위반은 학생과 소비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10일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익산 소재 축산물가공업체가 학교, 병원 등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해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행위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선육(생닭)을 부위별 부분 절단 가공한 완제품을 제조·유통, 보관방법, 원산지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닭고기 5상자 50kg 완제품을 학

교급식소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이 업체는 올해 1월1일부터 4월11일까지 약 1억원 이상의 신선육(생닭 25,790kg 가량)을 원자재로 구입하고 생산 및 작업일지를 단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은채 제조해 학교, 병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는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생닭) 50kg은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 현장 폐기처분 했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 청 민생특별 사법경찰팀(280-3601)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교육청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전북교육청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골자로 한 폭염 대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더위 휴식 시간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적용한다.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별로 필요할 경우 단축수업을 하고 야외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어린 주꾸미 35만마리 방류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어린 주꾸미 35만마리를 군산시 선유도와 비안도, 부안군 격포, 고창군 구시포 연안에 무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주꾸미는 그 가치가 높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지만 최근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우리 연구소에서는 주꾸미 대량 증묘생산기술 개발과 방류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꾸미 방류를 위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5월 부안, 총남 등지에서 주꾸미 어미 3,000마리를 구입해 수조에서의 산란유도 과정을 거쳐 어린 주꾸미(1cm 이상) 35만마리를 생산했다.

한편 전북 수산기술연구소는 2006년 도부터 2015년까지 총 294만 6,000마리를 생산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회복 및 증강을 위해 올해 이 미 방류를 마친 전북, 대하를 비롯해 해삼, 바지락, 꽃게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 방류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6.7%로 높인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확정...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 171개 세부과제 추진

정부가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올해 6.7%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년)'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 7개 분야에서 171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일·가정 양립의 고충 상담과 제도 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6곳에서 8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

집을 380곳 더 늘려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아동 비율을 지난해 28%에서 올해 30%로 높일 계획이다.

육아휴직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10개교 내외, 50억원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 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여성연구 인력 30% 쿼터제도로도 운용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품을 확충(7만8,000명~9만3,000명)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인재 아

카데미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에도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에 직급별 여성 현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기점으로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공개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최초로 공개기로 했다.

이 밖에 여성 상대 폭력 근절을 위해 부처 협업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사업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도 개발기로 했다. /박종주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전주지방법원

◇심판
사건 2016년단407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1. 김혜란(981008-*****)
주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5길 13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서윤

피상속인 망 김종복(620330-*****)
2015. 12. 13. 사망
최후주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458-75

주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김종복의 재산상속을 함께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6. 5. 4.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전북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92 전 264m(개별지가 1,425,600원)
나. 보험계약환급금: 3,763,100원
다. 유채동산: 없음
라. 금전채권: 임실농업협동조합 146,167원

2. 소극재산

가. 채권자: SGI 신용정보
채무액: 6,632,110원
채무의 종류: 카드
발생일: 2010. 12. 1.
나. 채권자: 남원세무서
채무액: 18,856,400원
채무의 종류: 국세채납
발생일:
다. 상기 외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2016. 6. 2. 판사 오승이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